

대기업, 추석 앞 협력사 납품대금 상생결제

현대차·효성·삼성 등 14곳 5조6000억원 조기지급 금호고속·기아차, 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공헌도 활발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력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또 10년 넘게 사회 공헌활동도 펼치면서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추석 전 납품 대금 조기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효성과 삼성, 현대차 등 14개 대기업들이 조기 지급한 납품 대금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효성은 211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복지대상자 등에 '사랑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공헌 활동을 펼쳤다.

또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을 비롯, 삼성디

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0개 계열사들은 1조원 규모의 협력사 물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협력사 물품대금을 한 달에 4차례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설·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취지에서 지급 시점을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 2350억원을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키로 했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광주신세계도 협력회사의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협력회사의 자금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반성장을 도모하지는 취지로, 126개 협력업체에 애초 오는 28일 지급예정인 대금을 2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롯데그룹도 30개 계열사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9월 거래분 대금을 연휴 3일 전인 19일까지 완료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비롯한 국내 계열사에 7000억원 상당의 대금을 조기 지급, 2만여개 중소기업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삼호중공업도 350여개 협력회사에 원래 지급일보다 1~2주 빠른 20일까지 200억원 가량의 자재대금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포스코도 거래기업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결제하던 것을 추석을 앞두고 17~21일 닷새간 매일 지급

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애초 예정된 다음달 2일 대신에 21일 조기 지급키로 했다. 포스코의 납품 대금 규모는 1760억원이다.

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잇따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목거노인과 노인복지관을 찾아 제수음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83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음품 등을 전달했다. 금호고속도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장기요양기관을 후원해오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해 46개 사회복지시설에 330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노사 합동으로 마련한 45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전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8.46 (-0.52)	↑ 금리(국고채 3년) 2.00 (+0.02)
↓ 코스닥 826.91 (-4.94)	↓ 환율(USD) 1121.10 (-2.10)



한전, 장애인 복지관 경차 지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지난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광주 서구장애

광주은행 “힘내요! 전통시장” 2기 어린이 시장투어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8일 오후 추석 명절을 맞아 양동시장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힘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투어 2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시장투어는 지난 2월 설을 맞아 진행된 장보기 행사에서 시장상인들과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어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함께 했다.

지역사랑봉사단 임직원과 어린이 40명은 특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물건을 구입 후 스탬프 도장을 받는 체험 학습을 통해 경제공부를 함께 하고, 전통시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계층에 나눔을 전달함으로써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송중욱 광주은행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오후 양동시장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힘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투어 2기’ 행사를 진행하며 장보기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현대차, 전면 유리에 내비 띄운다

스위스 홀로그램 전문기업과 협업...2020년 이후 탑재

홀로그램을 활용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 나올 전망이다.

현대차는 19일 스위스 홀로그램 전문기업 ‘웨이레이’(Wayray)와 협업, 홀로그램을 활용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부 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오는 2020년 이후 양산차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한다는 것 현대차 목표다. 홀로그램은 3차원(3D) 입체영상 또는 이미지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먼 곳의 사람이 실제 앞에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투영돼 대화하는 장면 등에 쓰인 기술이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차량용 홀로그램은 영상용 레이저를 스탠드형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나 전면 유리에 직접 투사해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존 HUD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고 전면창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어 화면 크기에도 거의 제약이 없다.

현대차는 이같은 기술을 활용,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각종 주행 정보를 띄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유리창 밖 외부 풍경 위에 증강현실로 주행 방향이나 주행속도와 제한속도, 도로 분기점까지의 거리, 추천 주행 경로, 건물명, 위험 경보 등의 정보를 더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도로나 주변 차량과 연결되는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내비게이션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10~12월 아파트 3361가구 입주

오는 10~12월 광주·전남 아파트 3361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12월 광주·전남 입주 예정 아파트는 3361가구가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하남3지구 모아엘가 더 퍼스트 703가구가 다음달 입주자를 맞고 순천시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490가구와 여수시 여수수정 행복주택 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첨단

대리수 300가구, 전남에서 광양시 광양 에르가 5년 공공임대 420가구, 목포시 석현동 에드가안채 114가구, 함평군 대동면 함평향교 임대주택 150가구, 장성군 공공실버 150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광주시 남구 진월 행복주택 460가구, 장흥군 코아루 해피트리 37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파트 대부분은 85㎡ 이하 아파트로 85㎡를 초과한 아파트는 45가구에 불과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효성 해외 스판덱스 기지 스마트 공장 변신

중국 4곳·베트남 1곳 IoT 구축... 전 부문 데이터 관리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스판덱스 생산기지가 ‘똑똑한’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한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중국 4개, 베트남 1개 지역의 스판덱스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중국의 취저우·자싱·광둥·주하이와 베트남의 동나이 소재 공장이다.

이들 지역에 구축된 시스템은 공정모니터링 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 스마트 사

물인터넷(IoT) 등으로,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공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생산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효성티앤씨는 원료 수입부터 생산·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전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제어 관리해 공장 효율성을 극

대화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다.

조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제조업체로 필수적인 조치”라며 “초일류 수준의 품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스판덱스 메이커로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